논어 14편 헌문 1장 · 원문·풀이

憲問「恥」。子曰：「邦有道，穀；邦無道，穀，恥也。」

독음 · 헌문치 자왈 방유도 곡 방무도 곡 치야

쉬운 풀이(요약) · 나라에 도가 있는데도 하는 일 없이 녹봉만 받거나, 도가 없는데도 녹봉을 좇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. 이 장에는 다른 해석도 있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憲 법 헌 헌 / 問 물을 문 문 / 恥 부끄럼 치 치 / 子 아들 자

曰 가로 왈 / 邦 나라 방 방 / 有 있을 유 / 道 길 도 도

穀 곡식 곡 곡 / 無 없을 무 무 / 也 어조사 야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